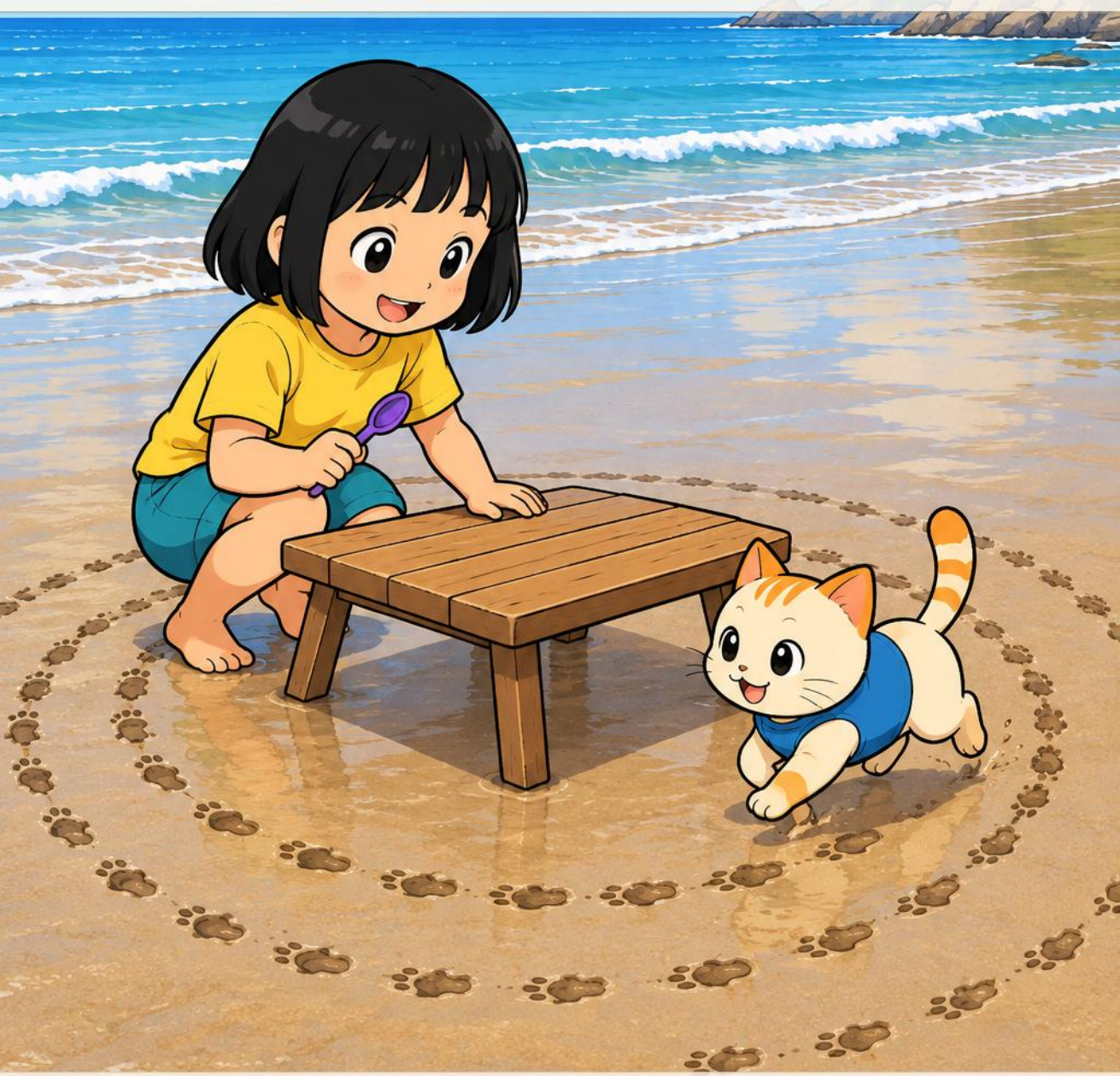
고양이야 밥은 어디로

하나 둘, 쌩! 꼬리부터 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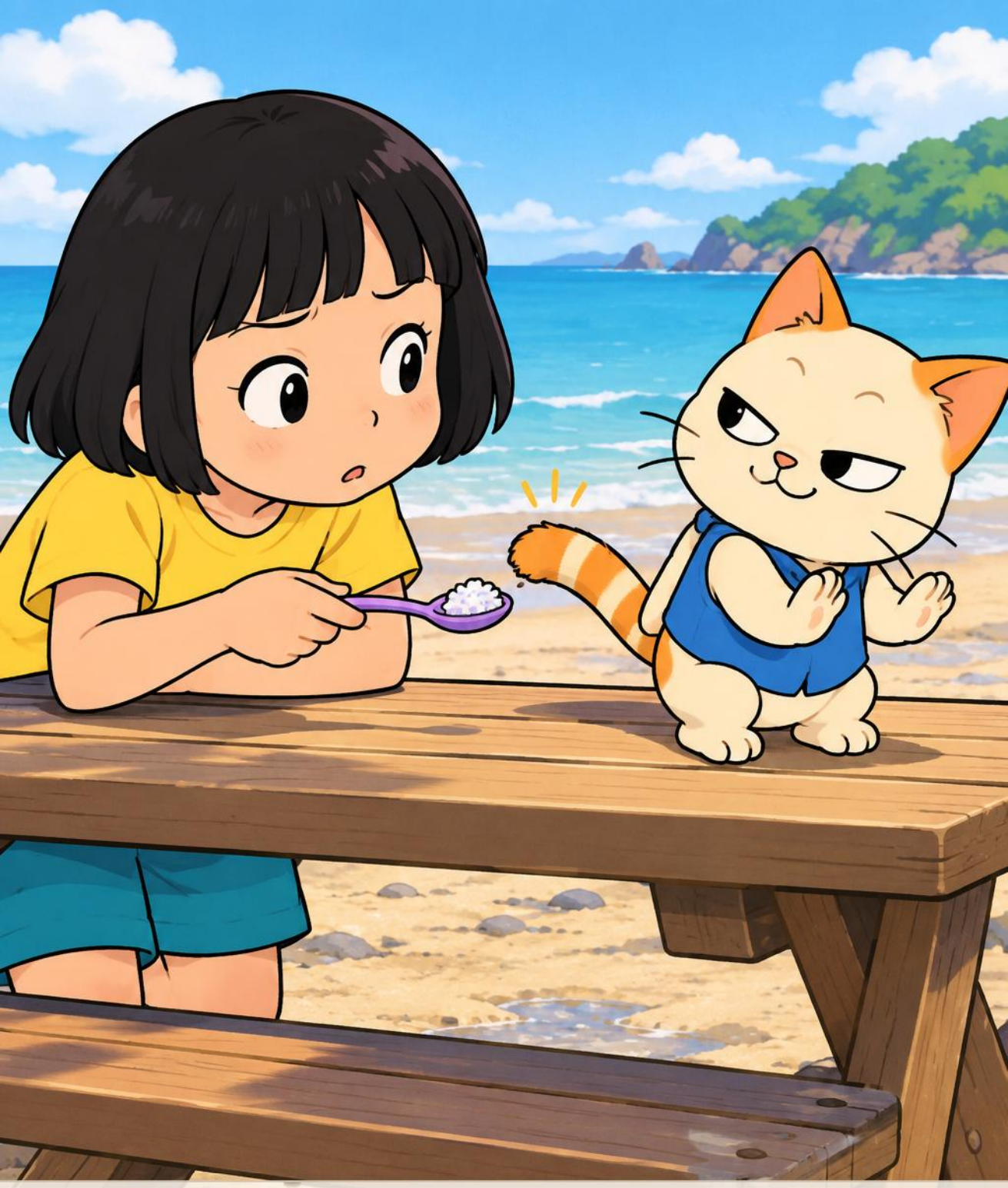
글·그림 올레길



바닷가에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어요. 그런데 서아는 숟가락만 든 채 슬금슬금 일어났어요.
“밥은 이따 먹을래. 지금은 놀고 싶단 말이야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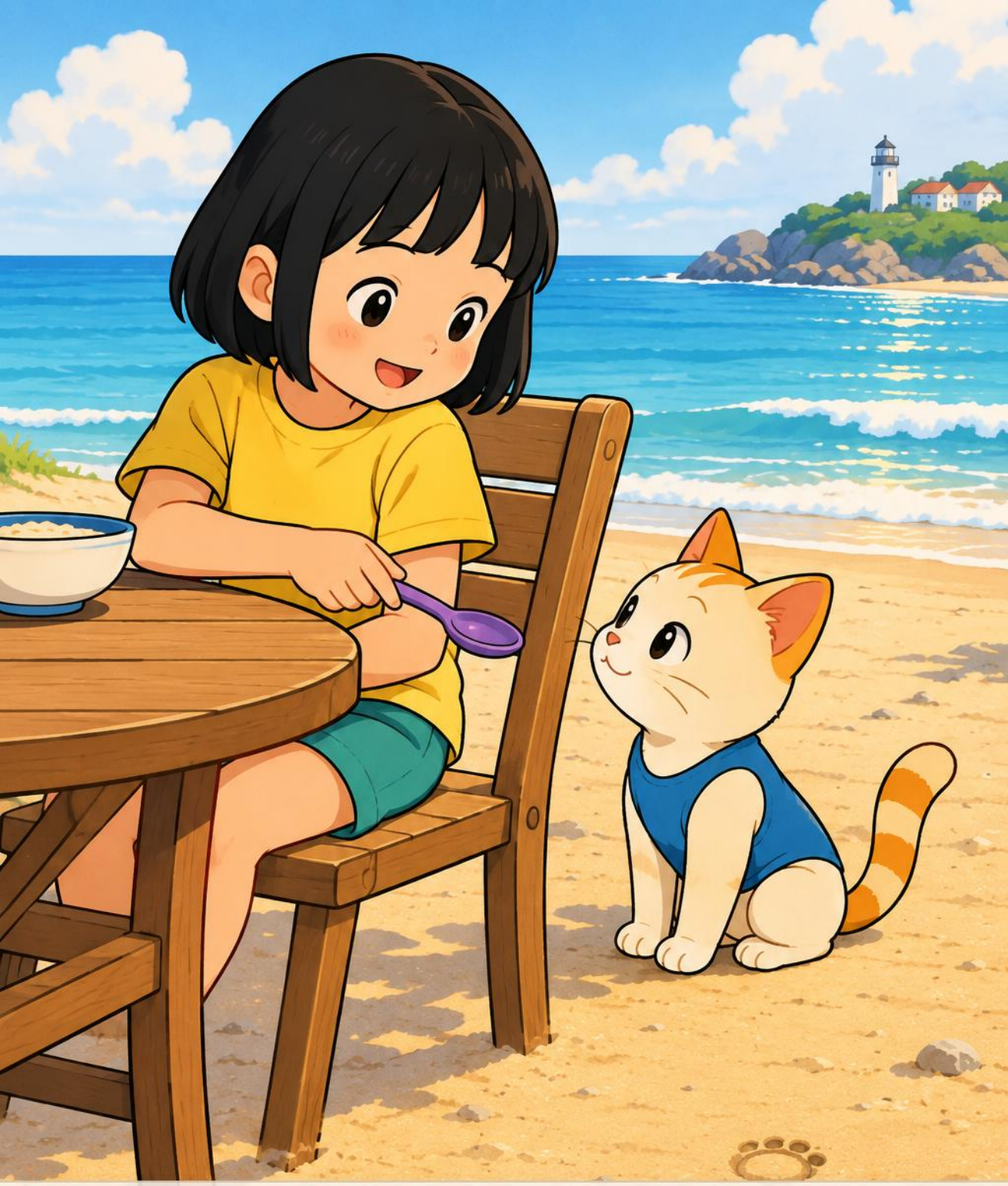
그때 고양이도 밥그릇 앞에서 홱 돌아섰어요. “하나 둘, 쌩!” 고양이가 달아났어요. 서아가 손가락을 들고 외쳤어요. “야옹아, 밥 먹어야지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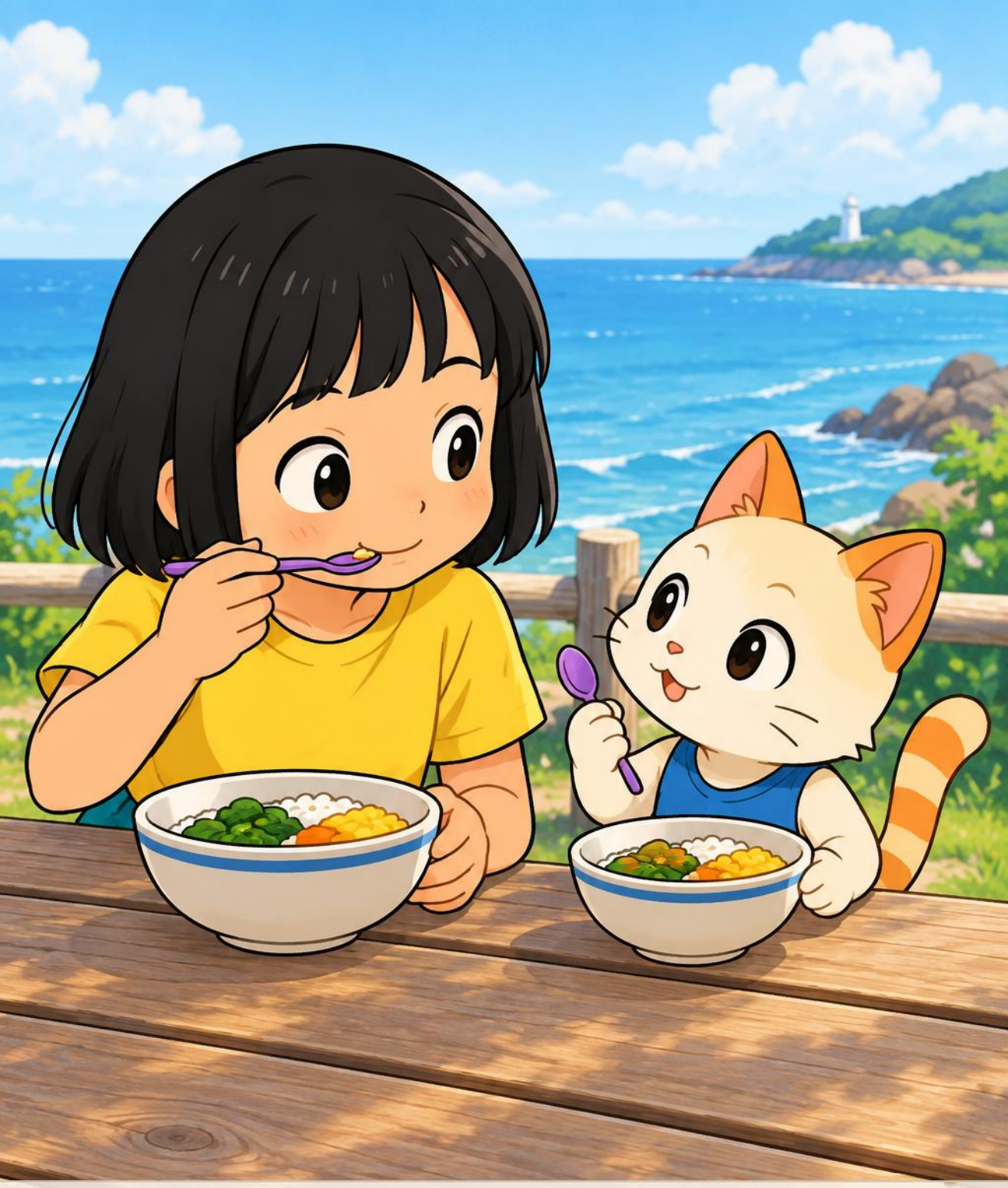
서아는 보라색 숟가락에 밥을 조금 떠서 내밀었어요. “자, 아~ 해 봐.” 고양이는 고개를 휙 돌렸어요. “흥, 나는 더 놀 거야!”



“하나 둘, 쌩!” 고양이는 밥상 둘레를 빙글빙글 돌았어요. 서아도 따라 빙글빙글. 모래 위에 발자국이 동그랗게 찍혔어요. “아이고, 어지러워!”



한참 뛰었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. 서아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. “야옹아, 나 배고파. 너도 그렇지?” 고양이가 살금살금 다가왔어요.



서아는 밥을 한 숟갈 떠서 냠! “음, 맛있다!” 고양이도 숟가락을 번쩍 들었어요. 따라 먹어 볼 모양이에요.



그런데 고양이가 숟가락을 거꾸로 물었지 뭐예요! 서아는 깔깔깔 웃음이 터졌어요.
“아니야, 야옹아. 이쪽으로 먹는 거야!”



둘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어요. 한 숟갈 먹을 때마다 함께 외쳤지요. “하나 둘, 냠!” 놀고 나서 먹는 밥은 꿀맛이었답니다.

끝

한 페이지마다 작은 별이 빛났어요.

고양이야 밥은 어디로
글·그림 올레길

© 2026 올레길 · Storypia